

광주FC, 체력 한계 연패 행진...ACLE 원정 어저나

김천상무에 0-2 패...10월 6일 FC서울 상대로 33라운드 경기 정호연, 100경기 출장 경기서 상대 수비에 공 빼앗기며 실점 빌미

광주FC의 '살림꾼' 정호연이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고도 웃지 못했다. 광주FC가 지난 28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K리그1 3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전반전에 단 한 차례 슈팅이 그쳤던 광주는 후반에는 수비가 흔들리면서 패배를 기록했다. 앞선 제주전 패배로 파이널A 진출이 무산됐던 광주는 연패에 빠졌다. 7위 광주는 승점을 더하지는 못했지만 8위 제주도 전북현대에 1-2로 지면서 2점 차로 자리를 지켰다.

광주 금호고-단국대를 거쳐 2022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든 정호연은 이날 시즌 30번째 경기이자 통산 100경기 출장을 이뤘지만,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의 시작점이 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김천의 철벽 수비에 막혀 광주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전반 40분 아사니가 왼발로 때린 공이 이날 광주의 첫 슈팅으로 기록될 정도로 일방적인 흐름으로 전반전이 진행됐다.

김천의 공세를 막으면서 0-0으로 전반전을 마감했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의 실점이 기록됐다. 후반 시작 2분 만에 김천 모재현이 오른쪽에서 공을 뚫고 올라간 뒤 오른쪽 슈팅까지 시도하면서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5분 아사니가 반격에 나섰다. 김천 골박스 지역에서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상대 수비 맞고 흘렀다.

후반 11분에는 광주가 모처럼 코너킥 상황도 맞았다. 하지만 최경록이 왼쪽에서 올린 공이 그대로 김천 골키퍼 김동현의 손에 걸렸다.

그리고 후반 28분 다시 한번 광주의 골대가 열렸다. 광주 진영에서 공을 잡고 있던 정호연이 상대의 압박에 넘어졌다. 공을 잡은 김천 김대원이 이동경에게 공을 넘겨줬고, 이동경의 왼발을 떠난 공이 그대로 광주 골대를 갈랐다.

앞선 제주전에서도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기면서 통탄의 실점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정호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광주 이정호 감독은 후반 32분 이희균을 불러들이고 가브리엘을 투입해 분위기를 전환에 나섰다. 그리고 후반 37분 모처럼 광주의 시원한 슈팅이 나왔다. 오후성이 오른쪽 슈팅을 선보였지만 공은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3분 뒤에는 상대 골키퍼의 호수비에 광주가 땅을 쳤다.

이민기가 올려준 공을 문전에 있던 허율이 헤더



광주FC의 이건희가 지난 28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상대의 태클을 뚫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로 연결했다. 공이 골대 앞으로 향했지만 김천 수문장 김동현이 호수비를 선보이면서 공을 품에 안았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광주가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경기는 0-2패로 끝났다. 강행군이 계속되면서 광주는 두 경기 연속 공수

에서 무딘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두 경기 연속 아쉬운 장면을 연출한 정호연은 올 시즌 32경기 전경기를 뒀 가브리엘에 이어 팀에서 가장 많은 30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교체 출장이 많았던 가브리엘에 비하면 정호연은 28경기를 선발로 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달렸다. ACLE

경기와 국가대표팀에도 다녀오는 등 부담 많은 여름을 보냈다. '체력'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안은 광주는 내달 1일 오후 7시 ACLE 가와사키 원정을 소화하고, 이어 6일 오후 3시에는 FC서울과 3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ACLE 연승 기원 '거리 응원전'

내일 가와사키 전 스크린 생중계...충장축제 콜라보 공연·경품 증정

구단 역사상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7-3 대승을 이룬 광주FC가 길거리 응원에 나선다. 광주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2024/25 그룹 스테이지 2차전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경기가 열리는 1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 앞 길거리에서 원정 경기 생중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대표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의 도움으로 진행되며 300인 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문화 공연도 펼쳐진다. 경품 증정도 이뤄진다.



구단주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ACLE 출정식을 통해 '거리 응원전'을 약속했다.

한편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 연승을 노린다. 지난해 리그 3위에 자리하면서 처음 ACL 진출에 성공한 광주는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상대로 1차전을 치렀다. 광주는 이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장식한 아사니의 맹활약 속에 7-3 대승을 거두면서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다. /김여울 기자 wool@



KSPo, 여자축구 정규리그 우승...현대제철 천하 끝내다

강재순 감독 "마지막 꿈 이뤘다" 2025 시즌 강선미 코치 사령탑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화천 KSPo의 강재순 감독은 이 팀의 초대 사령탑이다. 2011년 창단하면서 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14년째 팀을 이끌고 있다.

열네 번째 시즌을 맞은 강 감독의 KSPo는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16승 8무 4패로 승점 56을 쌓아 나머지 7개 팀을 제쳤다. 12승 5무 4패로 승점 41을 쌓아 마지막까지 경쟁한 끝에 인천 현대제철(승점 42)에 밀린 지난 시즌의 아쉬움도 털어냈다.

강 감독은 다음 시즌부터는 현장에서 한 발 떨어져 고문직인 총감독 직책으로 팀에 이바지하려 한다.

1964년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의 정년이 다가온 강 감독은 강선미 수석코치에게 사령탑 자리를 맡길 때가 왔다고 본다.

강 감독은 "(거취를 두고) 여러 고민이 많은 시점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이뤄 뜻깊다"며 "강선미 코치도 지도자로서 를 때다. 경기장에는 내가 동

석하겠지만 그래도 나서서 뭘 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K리그에서 현대제철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강 감독은 올 시즌에야 그 꿈을 이뤘다.

지난 시즌까지 통합우승을 11년 연속 달성한 최고 명문 구단 현대제철은 12승 11무 5패로 4위에 그쳐 플레이오프 진출이 무산됐다. 2009년 WK리그 출범 이후 현대제철이 플레이오프에 나서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 감독은 "사실 우리 팀은 재정 문제로 돈을 많이 주는 다른 팀에 선수를 여러 차례 내줘야 했다. 어떤 선수는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겠다고 그냥 떠나기도 했다"며 "여기서 열심히 해서 우승하자"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투자를 많이 하는 팀이 우승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좋은 선수가 계속 그쪽에 합류해 다른 팀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한 번이라도 하는 게 14년 동안 품고 있던 내 목표였다"고 덧붙였다.

강 감독은 스스로 칭찬에 인색한 편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강 감독도 정규리그 우승의 꿈을 이뤄 준 선수들에게 애낌 없이 칭찬을 쏟았다.

그는 "최수진이 창단 때부터 다른 팀에 가지 않고 계속 여기에 있다. 그런 선수가 우승 별을 달고 팀을 떠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베테랑 선수들이 후배를 잘 챙겨준 덕에 다들 별 하나를 달 수 있게 됐다"며 "최유정과 아스나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또 우리 포백 라인 선수들도 잘해줬다. 수비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해줬다"고 칭찬했다.

KSPo는 올 시즌 28경기에서 27골만 실점했다. 현대제철(25골)에 이어 최소 실점 부문 2위다.

이제 강 감독과 KSPo의 시선은 챔피언으로 향한다.

강 감독은 "올 시즌 전적이 좋지 않았던 팀은 현대제철뿐이다. 전적을 생각하면 선수들도 다 자신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강 감독은 침체한 한국 여자축구가 반등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1990년대 후반 강일영과 여자축구부를 이끌면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강 감독은 줄곧 여자축구팀만 맡아 선수들을 지도해 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대표팀이 잘해야 여자축구가 살아난다"며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검객들, 전국펜싱대회 금빛 찌르기

전남도청, 여자 에페 단체전 2연패 광주서구청 김상진 男 에페 개인전 금

광주·전남 검객들이 '제29회 김창환배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금빛 찌르기'로 활약했다.

전남도청은 여자 에페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김태희, 김향은, 박소형, 유단우로 이뤄진 전남도청 에페팀은 16강에서 대전연고에 45-41승, 8강에서 경기도청을 상대로 45-34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한 뒤 강원도청을 41-38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전남도청은 결승에서 '펜싱 강팀' 계통시청을 상대로 45-40승을 기록하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전남도청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다운, 손정민, 전수인, 최세빈으로 팀을 이룬

전남도청 사브르 팀은 16강에서 호남대를 45-44로, 8강에서 인천중구청을 45-36으로 꺾었다. 이어 준결승에서 양구군청을 상대로 45-31 승리를 거둔 전남도청은 결승에서 대전시청에 43-45로 패했다.

광주서구청 김상진은 남자 에페 개인전 우승에 이어 김대연, 김재원, 이승현과 단체전 동메달도 합작했다.

8강에서 한정민(호남대)을 15-13으로 누른 김상진은 4강에서 안태영(국군체육부대)을 15-12로 꺾은 뒤 결승에서 박상영(울산시청)에 15-10으로 승리하며 남자 에페 정상에 올랐다.

호남대 박정호는 남자 사브르 개인전 준우승을 기록했다.

8강에서 이도훈(한국체대), 4강에서 오은석(대구시청)을 꺾은 박정호는 임재훈(국군체육부대)과의 결승전에서 11-15로 패해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양구에서 열렸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